통일화보

우리민족끼리
주체112(2023)년
(1 ─ 2월)
1호

특집 해외동포들의 영원한 스승, 자애로운 어버이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올해를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일 신심드높이

통일화보

주체112(2023)년 1호 (1－2월)

| 특집 |

해외동포들의 영원한 스승, 자애로운 어버이 2

| 절세의 위인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해 2023년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22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확대회의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24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건군절을 맞으며 인민군장령들의 숙소를 축하방문하시고 기념연회에 참석하시였다 26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30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2023년도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 참석하시였다 54

강동온실농장건설착공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참석하시여 몸소 착공의 첫삽을 뜨시였다 56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뜻깊은 2월명절을 기념하여 진행된 체육경기를 관람하시였다 58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착공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격동적인 연설로 청년전위들을 고무격려해주시고 착공의 첫삽을 뜨시였다 6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66

| 소 식 |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 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 진행 74

평양시인민소비품전시회 진행 76

| 공화국의 현실 |

올해를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일 신심드높이 78

점 하나, 선 하나에도 인민의 꿈과 리상을 담기 위해 82

최첨단돌파전에서 만족이란 없다 86

문명발전을 선도해가는 재능있는 명도안가들 90

희열과 랑만이 넘치는 문화정서생활기지 94

| 인물소개 |

공화국의 품에서 영생하는 삶 문예봉선생 98

소아심장외과분야의 권위있는 실력가 102

| 슬기로운 우리 민족 |

뜸치료 110

력사유적 대성산성 112

남조선인민의 분노 《이러다 전쟁난다!》, 《한미련합전쟁연습 당장 중단하라!》 106

■ 표지: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마음 안고

■ 뒤표지: 리명수의 서리꽃

30

70

82

86

102

■ 편 집: 리대성, 정철성

해외동포들의 영원한 스승, 자애로운 어버이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81돐에 즈음하여 —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사상과 제도, 계급과 계층에 관계없이 민족의 넋을 귀중히 여기고 간직하는 모든 사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다 포섭하고 단합시키는것은 우리의 확고한 립장이며 일관한 정책입니다. 우리가 펴나가는 광폭정치는 만사람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는 숭고한 인간애의 정치이며 민족의 모든 계급, 계층을 나라와 민족의 공동위업을 위하여 굳게 묶어세우는 가장 폭넓은 애국애족의 정치입니다.

김 정 일

경사스러운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는 해외동포들의 가슴가슴은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끝없이 설레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은 해외동포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그들을 참다운 애국애족의 길로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스승이시였다.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조이며 시련과 난관을 헤치던 고난의 그 시기에도 동포자녀들에게만은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해마다 보내주시고 자연재해를 당한 동포들에게 사랑의 위문전문과 거액의 위문금도 보내주시며 사랑과 정을 다해 뜨겁게 보살펴주신 위대한 장군님은 정녕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이역의 자식들을 위해 누구보다 마음을 쓰시며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그 모습 우러러 해외동포들이 터치는 심장의 웨침 2월의 하늘가에 메아리친다.

《해외동포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김정일**장군님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글 본사기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총련을 애족애국의 선각자, 애국충성의 모범,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조직으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운명의 수호자이십니다.

…

어버이장군님께서 재일동포들과 맺어주신 뜨거운 정과 혈연의 력사는 오늘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이역에 사는 위대한 우리 인민으로 뜨겁게 품어안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친어버이 은정과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변함없이 흐르고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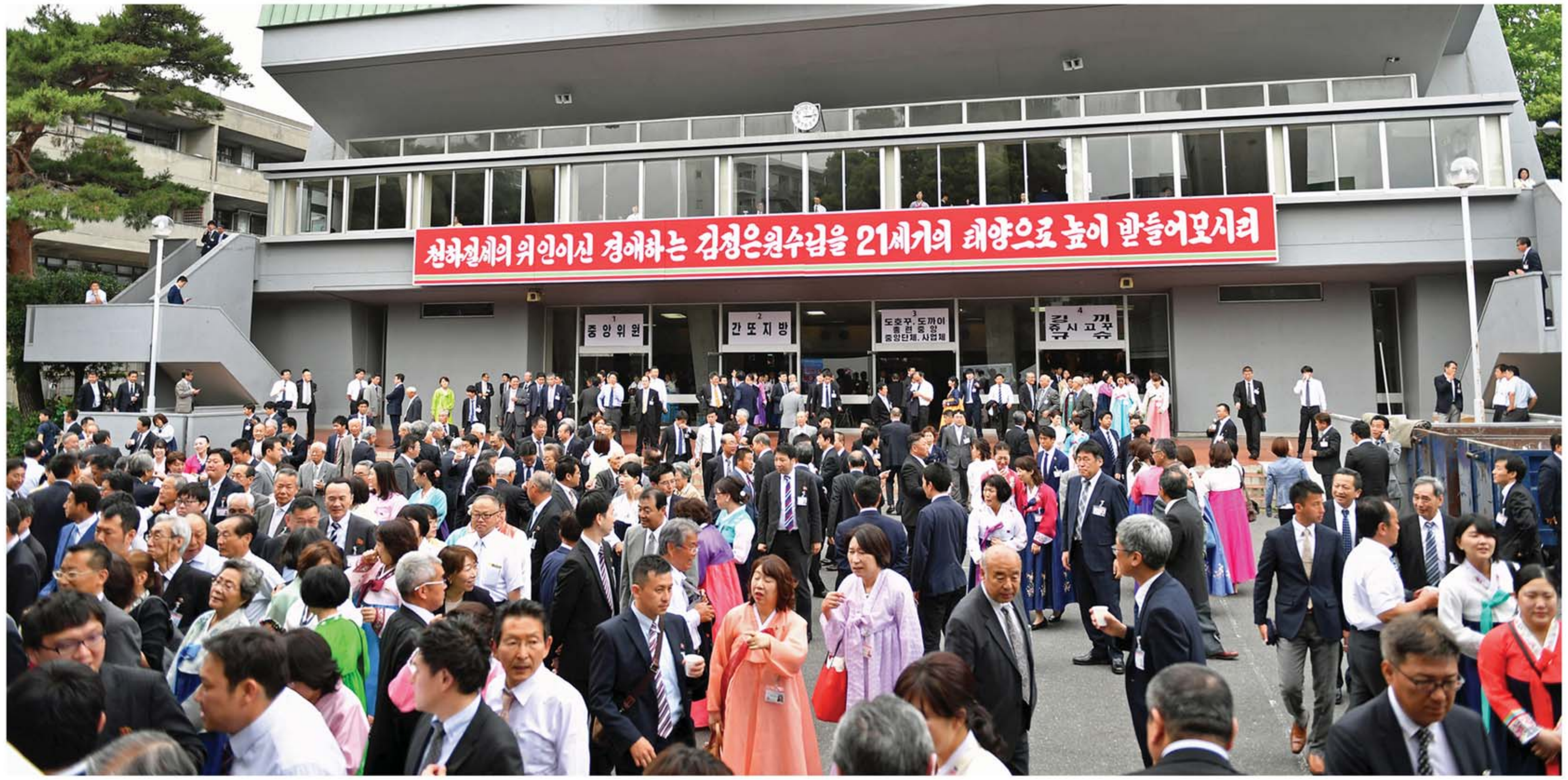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에서 올린 축전중에서 -

총련일군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81(1992)년 4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탄생 80돐경축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1942-2022
김정은장군 만세!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상의

광명성절경축 《진주회》 동포녀성들의모임

우리 모범 꽃피우자!
오오따분회
모범분회
쟁취궐기모임


천하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리
1 중앙위원
2 간또지방

재일조선인대표단 성원들의 축하를 받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81(1992)년 4월

사실말이지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그 장구한 애국의 초행길을 추호의 변심이나 탈선도 없이 오늘까지 승리적으로 걸어올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하해같은 사랑의 결과라고 해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자신들도 총련합회의 자랑찬 력사이자 가까이에 있는 자식보다 먼곳에 떨어져있는 자식을 더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하고도 은혜로운 사랑의 력사라고 말하고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도서 《백두산하늘아래 우리가 삽니다》에 실린 글중에서 -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 만세!
연길시2중모범지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정일심동포를 만나주시였다. 주체91(2002)년 6월

김정일장군님은 나라와 민족을 누구보다 열렬히 사랑하시는 애국애족의 화신이시였다. 사상과 리념우에 민족을 놓으시고 민족을 위해 모든것을 복종시켜나가시는 위대한 애국자가 바로 장군님이시였다. 그분께서는 한없이 넓은 포옹력과 숭고한 덕망을 지니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가림없이 모두 한품에 안아 통일의 길로 이끌어주시였다. 그 위대한 사랑의 손길을 우리 고려인들은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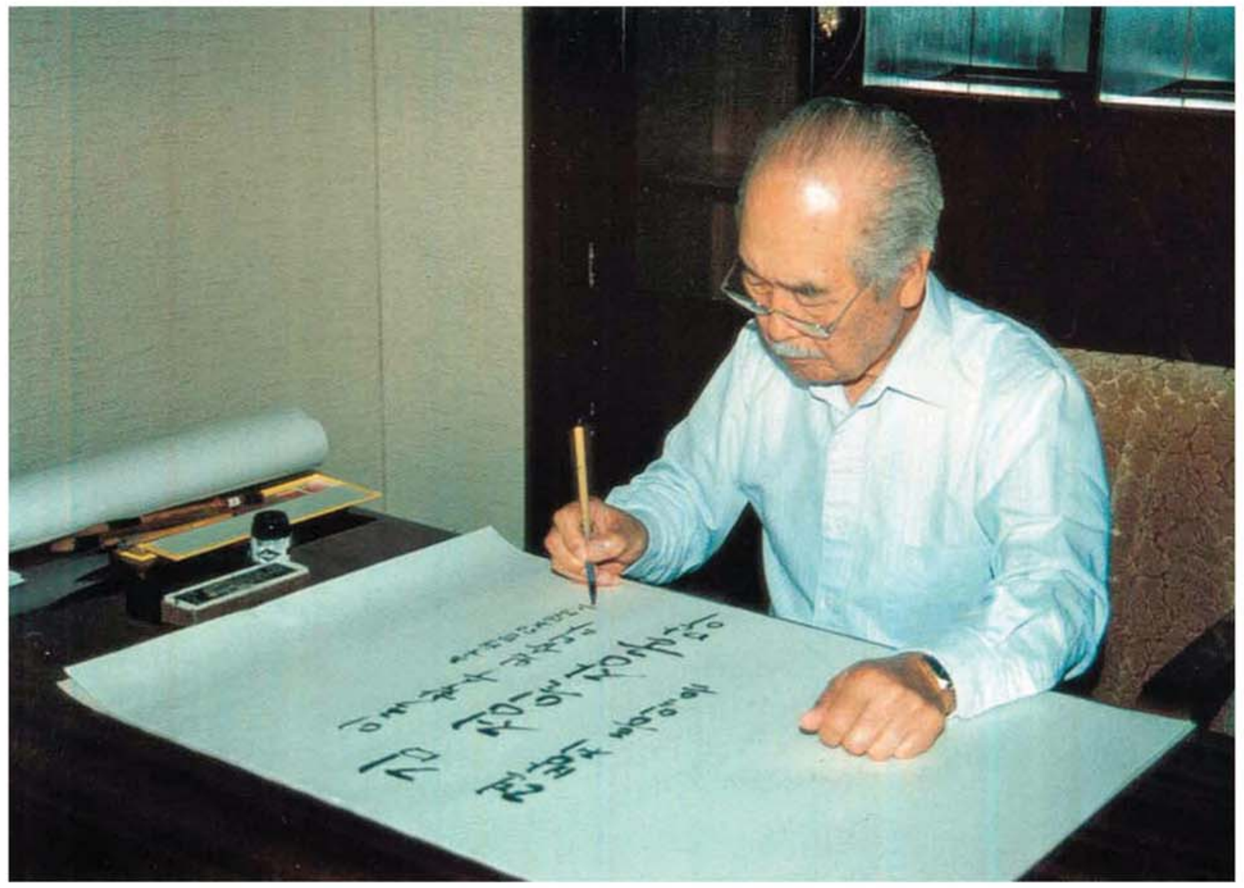
- 재우즈베끼스딴동포의 글중에서 -

조선민족예술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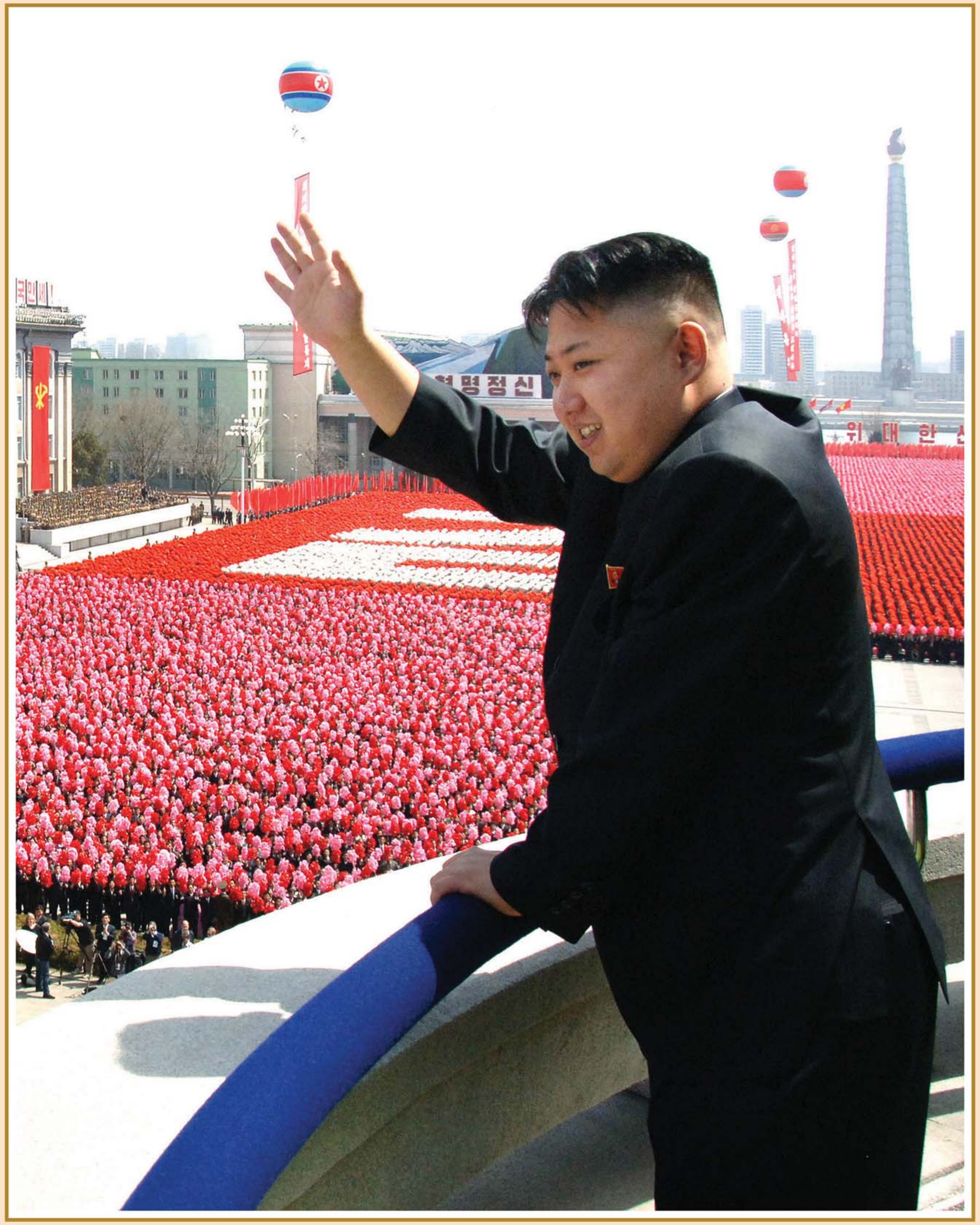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재미교포녀류기자 문명자선생을 만나주시였다. 주체89(2000)년 6월

김정일장군님을 한번 대하게 되면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것없이 누구나 겸손하고 너그러운 그 인품에 머리가 수그러진다. 그것은 마치 크고작은 강줄기를 다 받아안는 바다의 넓은 품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품속에 자기를 떠맡기고싶은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는것이다. **김일성**주석님에 의해서 개척된 민족자주의 길은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이어질것이다. 우리 배달민족의 앞날은 창창하다.

- 전 천도교청우당 위원장 최덕신의 글중에서 -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해외동포들



해외동포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해 2023년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112(2023)년 새해에 즈음하여 1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가장 경건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에 **김정은**원수님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의 성스러운 위업에 고귀한 한평생을 다 바치시여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높고 강대한 당과 국가, 인민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삼가 새해의 인사를 드리시였다.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웅대한 목표실행을 위해 당과 인민이 부여한 무거운 책무를 다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실질적이며 비약적인 변화발전을 반드시 성취할 굳은 맹세를 다짐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확대회의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확대회의가 2월 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확대회의에서는 2023년도 주요군사정치과업과 군건설방향에 대한 전망적문제들이 심도있게 토의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화국 전체 무장력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중임을 깊이 명심하고 사회주의위업완성을 위한 장엄한 려정에서 우리 인민이 전취한 력사적승리들을 더욱 공고히 하며 주체의 사회주의건설사에 새로운 발전의 장을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 당의 방대한 투쟁과업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억척같이 떠받들고 힘있게 개척해나가는데서 백승의 위훈을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일당백》구호를 제시하신 60돐이 되는 력사적인 날에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하시여 강군건설의 중요한 리정표를 마련하시고 공화국무력의 혁명적인 군사정치활동방향을 천명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르며 인민군지휘관들과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당의 군사정책을 관철해나가는 길에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중요한 책무를 다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건군절을 맞으며 인민군장령들의 숙소를 축하방문하시고 기념연회에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강대한 주체조선의 청사에 금문자로 새겨질 조선인민군창건 75돐을 맞으며 2월 7일 인민군장령들의 숙소를 축하방문하시였다.

꿈결에도 그립고 뵙고싶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하시자 국방성 지휘관들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련합부대 군정지휘관들이 가장 뜨거운 경모의 정을 안고 영접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조선인민군창건 75돐 기념연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연회장은 창군초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전투적행로에서 조국의 존엄과 번영, 인민의 행복을 혁명의 무장으로 담보하며 백승의 무훈을 새겨온 조선인민군의 위대한 력사와 전통에 대한 크나큰 자부와 환희로 설레이고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원수님께서 연회장에 들어서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강철의 령장을 우러러 최대의 영광과 경의를 삼가 드리며 열광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건군절을 맞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을 위하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용진해온 한없는 긍지로 가슴부풀게 하고 걸어갈 충성의 천만리에 대한 혁명적의지를 백배, 천배로 가다듬게 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열정에 넘친 연설에 접한 군장령들은 우리 인민군대특유의 성스러운 전통을 굳건히 이어갈 신념의 맹세를 담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였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어주신 육친의 뜨거운 정과 하늘같은 믿음을 한생토록 간직하고 그 어떤 천지지변이 닥쳐온대도 **김정은**원수님을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과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위업을 결사보위하며 국권수호와 인민사수, 거창한 창조의 전역들에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전인민적진군을 무적의 총대로 억척같이 담보함에 일심분투할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조선인민군창건 75돐을 경축하는 성대한 열병식이 2월 8일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거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리설주녀사와 함께 광장에 도착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 영접의식이 엄숙히 진행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와 공화국무력의 주요부대 군기들을 사열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열병광장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열병대원들과 관중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백전백승사를 빛내여온 혁명강군의 장엄한 열병행진이 개시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선렬들이 물려준 충성과 애국의 바통을 이어 우리 혁명무력과 조국의 밝은 미래를 떠받들어나갈 결의를 안고 보무당당하게 행진해나가는 혁명의 계승자들에게 손을 높이 드시여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건군절경축광장의 밤하늘을 진감하며 주체적공군무력의 열병비행이 시작되였다.

당중앙이 안겨준 불굴의 전투정신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만장약한 하늘의 결사대, 불사조들이 조종간을 틀어잡고 기운차게 날았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의 비범특출한 군사전략사상과 현명한 령도밑에 천하무적의 초대강국으로 급부상한 주체조선의 첨단병기들을 위시한 정의로운 힘의 장엄한 시위가 시작되였다.

오직 수령의 명령만을 받들어 언제든 자기의 전략적사명에 충직할 림전태세로 충만되여있는 전략미싸일부대 전투원들의 도도한 기상이 굽이치는 광장으로 대하를 이룬 공화국전략무력의 거대한 실체들이 지심을 울리고 용감한 위용을 시위하며 진군하였다.

이 세상 그 어떤 강적도 범접할수 없는 필승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쥔 백전백승의 영웅군대 조선인민군의 열병식이 끝나자 위대한 령장께 드리는 천만장병들과 인민들의 최대의 경의와 영광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는 가운데 또다시 황홀한 축포가 터져올라 건군절의 밤하늘을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우리 혁명무력의 장구하고도 성스러운 력사를 가장 빛나는 영광의 절정에 올려세운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은 천하제일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군기로 추켜들고 나아가는 일당백혁명강군의 전투적기상과 주체혁명위업의 끝없이 양양한 전도를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한 일대 정치적사변으로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 진행

48
2023
기계화종대
백두의혁명정신
572

123
124

2023
기계화종대

1948
2023
ㅈ09151758
ㅈ09151763

인민공화국만세!
기계화종대
2023
백두의혁명정신
573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 참가한 각급 부대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2월 9일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에 참가한 각급 부대, 단위의 지휘관,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조선인민군창건 75돐경축 열병식을 우리 국가의 권위와 위대함, 높은 명예와 창창한 앞날을 더욱 명확하게 그려주는 청사에 특기할 정치군사적사변으로 빛내이는데 공헌한 장병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영예의 군기들을 앞세우고 열병광장에 굽이친 위대한 무장력의 도도한 격류는 당과 조국에 대한 충실성을 최고의 사명으로 간주하고 혁명의 최전방에서 영광넘친 공화국의 승리사를 고귀한 피와 무수한 위훈으로 수놓아온 우리 군대의 불멸의 영웅성과 전투적기개, 절대적힘의 일대 과시로 된다고 평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강자가 되여야 존엄과 명예도 떨칠수 있고 오직 승리로써만 자기 위업의 정당성도 증명할수 있는 현 세계에서 강군이라는 반석우에 서지 못한 번영의 탑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날로 더욱 포악해지는 제국주의폭제를 결단코 힘으로 제압평정해야 할 조선혁명의 특수성은 우리 군대로 하여금 오늘에 만족함이 없이 지나온 력사와 대비할수 없는 빠른 속도로 더 강해질것을 요구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안녕을 수호하는데서 그 누구도 감당해낼수 없는 혁명의 전위로서의 중임을 맡고있는 조선인민군이 백전백승하는 영웅군대의 명예를 줄기차게 떨치며 우리 혁명의 새로운 력사적진군을 무장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장병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창건 75돐 경축행사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2월 9일 조선인민군창건 75돐 경축행사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열광의 《만세!》 환호성을 터쳐올리면서 조국과 혁명, 인민보위의 전초선을 지켜 분투하는 인민군장병들의 애국충심을 값높이 평가해주시며 뜻깊은 건군절기념행사에 불러주시고 하늘같은 사랑과 정을 거듭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경축행사참가자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 땅의 귀중한 모든 전취물, 모든것의 첫자리에는 우리 혁명군대의 고결한 피와 땀, 값비싼 헌신이 뜨겁게 깃들어있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의 사상과 위업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한 우리 인민군대의 불멸의 공적으로 하여 조선혁명의 장구한 력사가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백전백승하는 군대, 이것이 우리 인민군대의 영원한 이름으로 되여야 한다고,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만이 지닌 고귀한 명예를 가장 큰 재부로 간직하고 주체조선의 불패성과 강대성을 무장으로 떠받들어온 혁명군대의 영광넘친 75년사를 백년, 천년으로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이 언제나 당과 조국, 인민과 생사를 같이하며 온갖 도전들을 용감히 맞받아 자기의 성스러운 위업에 끝까지 충실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창건 75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건군절경축행사에 특별대표로 초대된 원군미풍열성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2월 14일 조선인민군창건 75돐 경축행사에 특별대표로 초대되여 뜻깊은 평양체류의 나날을 보낸 원군미풍열성자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응당한 본분을 한 자기들을 온 나라의 대경사로 거행되는 최상최대의 정치군사축전에 특별히 불러주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하늘같은 사랑과 은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어버이를 우러러 감격의 환호를 목청껏 터쳐올리며 솟구치는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참가자들의 열광의 환호에 따뜻이 답례하시며 조국보위초소에 혈연의 정을 잇고 평범한 날에나 시련의 날에나 변심없이 혁명무력강화의 길에 순결한 량심과 애국지성을 다 바쳐가는 원군미풍열성자들에게 뜨거운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원군미풍열성자들이 앞으로도 우리 군대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주체조선특유의 국풍인 원군기풍을 더욱 승화시켜나가는데서 애국자의 전형으로서의 참된 삶을 변함없이 이어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터져올랐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감격의 눈물로 두볼을 적시는 원군미풍열성자들에게 오래도록 손저어 답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국청사에 특기할 전승 70돐 경축행사에 이 고마운 원군미풍열성자들을 또다시 특별대표로 초청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두가 건강하고 안녕하기를 뜨겁게 축원하시였다.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2023년도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 참석하시였다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전면적부흥발전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는 우리 국가의 무진한 저력과 휘황한 래일에 대한 인민의 확신을 백배해주며 2023년도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사업인 화성지구 2단계 건설착공식이 2월 15일에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착공식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사회주의리상실현의 위대한 개척자, 창조자가 되시여 인민의 락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시기 위해 불철주야의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치였다.

착공식이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김덕훈 내각총리가 착공식연설을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착공을 알리는 발파단추를 몸소 누르시였다.

순간 건설장전역을 뒤흔드는 장쾌한 뢰성에 이어 축포탄들이 터져오르고 참가자들이 웨치는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국가의 잠재력과 우리 인민의 창조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떨치기 위한 장엄한 대건설투쟁에 충천한 기세로 또다시 총궐기해나선 전체 건설자들에게 손저어주시며 뜨겁게 고무해주시였다.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화성지구에 련속적으로 전개되는 건설대전은 위대한 당중앙의 향도따라 막아서는 시련과 도전을 과감히 딛고 우리 식, 우리 힘, 우리 손으로 사회주의 새 문명, 새 생활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조선인민의 불가항력적기상을 자랑찬 변혁적실체로 뚜렷이 실증하게 될것이다.

강동온실농장건설착공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참석하시여 몸소 착공의 첫삽을 뜨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향도따라 창조와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치며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에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국가의 도도한 전진기상, 우리 인민의 충성과 애국의 힘이 총분출되는 속에 평양시민들을 위한 현대적인 온실농장건설이 시작되였다.

강동온실농장건설착공식이 2월 15일에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였다.

착공식이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착공식연설에 이어 결의토론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강동온실농장건설착공을 기념하여 몸소 첫삽을 뜨시였다.

착공을 알리는 발파의 뢰성이 대지를 뒤흔들고 강동지구에 일어날 자랑찬 변혁상을 예고하며 오색령롱한 축포탄들이 터져올랐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건설에 참가한 부대 주요지휘관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면서 부대, 구분대들을 창조와 위훈에로 잘 이끌라고, 모든 장병들이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길에서는 오직 전진과 창조만이 있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의지를 가장 충실하게, 확실하게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부대의 명예를 걸고 부과된 과업을 결사관철함으로써 당의 믿음에 꼭 보답하라고 전투적으로 고무해주시였다.

당의 원대한 농촌혁명구상과 우리 시대의 문명이 응축된 새 《농장도시》의 눈부신 모습을 펼치게 될 강동온실농장건설은 사회주의의 더 밝은 미래를 앞당겨오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백배의 신심을 안겨줄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뜻깊은 2월명절을 기념하여 진행된 체육경기를 관람하시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기념하여 2월 17일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사이의 체육경기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경기를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선수들과 관람자들은 《만세!》의 환호성을 열광적으로 터쳐올리였다.

먼저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간의 축구경기가 진행되였다.

경기휴식시간에 평양항공구락부 모형항공기선수들이 각이한 모형항공기들의 난도높은 기교비행을 펼쳐놓아 관람자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선수들모두가 지칠줄 모르는 강한 승부심으로 경기장을 종횡무진하며 멋진 경기장면들을 펼쳐보이는 속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득점기회들이 마련될 때마다 관람석에서는 기쁨과 아쉬움이 엇갈린 호성이 터져나오고 응원열기는 한층 고조되였다.

경기에서는 국방성팀이 내각팀을 3:1로 이겼다.

축구경기에 이어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사이의 바줄당기기경기가 진행되였다.

바줄당기기경기에서도 국방성팀이 내각팀을 2:0으로 이겼다.

내각과 국방성의 일군들은 경사로운 2월명절을 맞으며 뜻깊은 체육문화행사를 마련해주시고 몸소 시간을 내시여 자리를 함께 하시며 무한한 힘과 용기와 기쁨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착공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격동적인 연설로 청년전위들을 고무격려해주시고 착공의 첫삽을 뜨시였다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착공식이 2월 25일에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착공식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청년들을 사회주의건설투쟁의 선봉대, 돌격대로,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전도양양한 젊은 주력부대로 값높이 내세워주시고 정과 사랑을 다해 키워주시는 위대한 어버이를 우러러 열광넘친 《만세!》의 환호를 목청껏 터쳐올리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뜻깊은 착공식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기발을 지휘성원들에게 수여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시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착공을 기념하여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몸소 첫삽을 뜨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착공식장에 몸소 나오시여 불같이 뜨거운 연설을 하시고 가장 사랑하는분과 함께 건설의 첫삽도 뜨시며 청년들이 수도건설의 최전구에서 위훈의 창조자, 승리자가 되라고 크나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는 아버지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에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열광넘친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발파단추를 누르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해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수도 평양을 위하여!》라는 신성한 의무와 시대의 부름을 깊이 간직하고 웅장화려한 새 거리, 부흥강국의 변혁적실체를 보란듯이 일떠세우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미더운 청년전위들을 뜨겁게 고무격려하시였다.

평양시 서포지구 새거리건설착공식
주체112(2023)년 2월 25일

당의사상관철전
애국청년
당정책옹위
결사옹위
위대한 우리 인민에게 모든 영광과 행복을!
결사관철
백두청춘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청년영웅이 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주체112(2023)년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김정은**원수님께 전원회의 사회를 위임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토의사업목적에 대하여 밝히시고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실행의 첫해 사업정형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분석과 평가를 내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전원회의가 가지는 중요성을 명심하고 본 전원회의가 농업발전의 전망을 확고히 열어놓는데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여는 결정적인 계기로 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개회를 선언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였다.

1.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실현을 위한 첫해 투쟁정형과 일련의 중요과업들에 대하여
2. 인민경제계획수행규률을 철저히 확립할데 대하여
3. 국가재정금융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당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4. 조직문제

상정된 의정들은 전원일치로 승인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 《올해 농사에서 나서는 당면과업과 농업발전의 전망목표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 《인민경제계획수행규률을 철저히 확립할데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셋째 의정으로 《국가재정금융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당면한 문제들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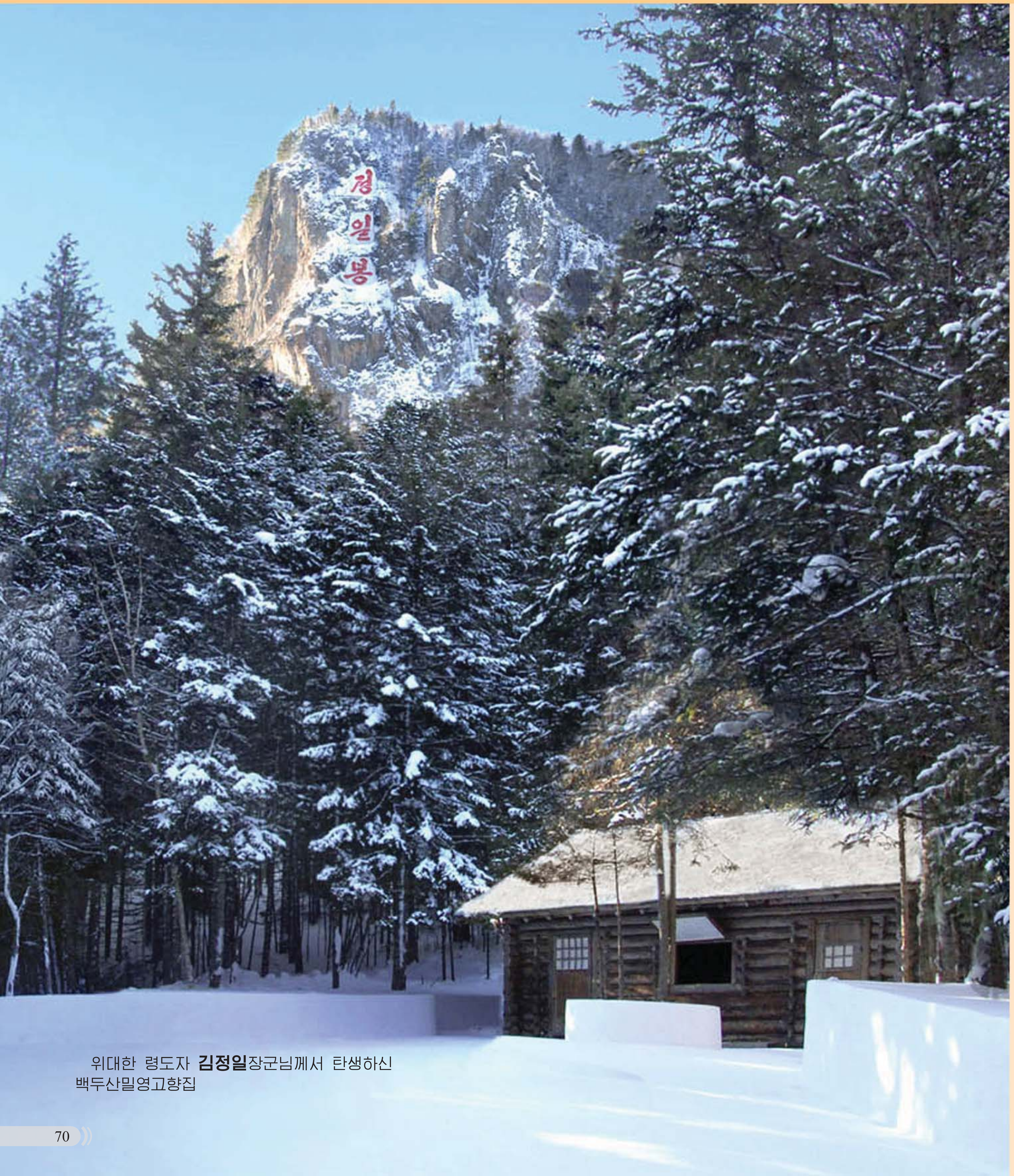
전원회의는 넷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폐회사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는 사회주의농촌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위대한 새시대, 자립경제발전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도약의 리정표로,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우리의 잠재력, 우리의 정신에 대한 자신심을 안고 백절불굴하는 전체 인민의 투쟁열의와 전진기세를 비상히 앙양시키는 중요한 정치적계기로 될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온 나라 인민들이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경모의 마음을 안고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과 절세위인들의 동상, 태양상을 찾는 사람들의 물결이 뜨겁게 굽이쳤다.

수도 평양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탄생 81돐경축 사진전람회, 중앙미술전시회, 제11차 광명성절료리기술경연, 조선소년단전국련합단체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있었다.

수도와 각지에서는 다양한 경축공연들과 청년학생들의 야회, 녀맹원들의 경축무도회가 진행되였으며 삼지연시에 펼쳐진 특색있는 눈얼음조각풍경은 인민의 리상도시의 경축분위기를 한껏 돋구었다.

중앙동물원을 비롯한 문화휴식터들과 급양봉사망들도 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사람들로 흥성이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만수대언덕으로 오르는 각계층 근로자들

광명성절경축공연의 한 장면

태권도전당에서 진행된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

인민의 리상도시 삼지연시에 펼쳐진 눈얼음조각풍경

2월의 봄명절을 이채롭게 장식한 광명성절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가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 의안을 결정하였다.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111(2022)년 사업정형과 주체112(2023)년 과업에 대하여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1(202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12(202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넷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의 주체111(2022)년 사업정형에 대하여

다섯째, 조직문제

첫째 의정과 둘째 의정에 대한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사업보고와 주체111(202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2(202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가 전원일치로 채택되였다.

셋째 의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심의에 제기된 법초안에 대한 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하였으며 토론들이 있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넷째 의정에 대한 보고에 이어 최고인민회의는 중앙검찰소의 2022년 사업정형을 심의하고 사회주의헌법에 규제된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의 사업보고를 승인함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다섯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는 국가사업전반에 조선혁명의 불변지침인 자주, 자립, 자위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의 전위에서 인민의 대표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참가자들의 엄숙한 각오와 높은 정치적열의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평양시인민소비품전시회 진행

평양시인민소비품전시회가 지난 2월 14일부터 23일까지 평양제1백화점에서 진행되였다.

전시회에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류원신발공장, 평양곡산공장, 천리신발제작소를 비롯한 중앙경공업공장, 지방공업공장들과 각종 생활용품들을 만들어내고있는 소비품생산단위들이 참가하였다.

이불류, 신발, 지은옷, 건강식품 등 3 100여종에 45만 8 000여점의 제품들이 출품된 전시회장은 련일 참관자들로 흥성이였다.

전시회에서는 인민들의 인정을 받을수 있는 명제품, 명상품이 되도록 하기 위한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이면서 얻은 경험과 질적지표를 개선하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들이 교환되였다.

사진 최광혁, 리철영. 글 윤금철

올해를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일 신심드높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새로운 신심과 활력에 넘쳐 국가발전의 새 지평을 향한 진군길에 떨쳐나섰다.

금속, 화학, 전력, 석탄, 철도운수를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에서는 련대적혁신, 집단적경쟁열의를 고조시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도도히 굽이치는 혁신과 전진의 기상은 농사차비로 들끓는 드넓은 전야와 용암마냥 끓어번지는 대건설전역들, 탐구의 열정 바쳐가는 과학연구기지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경공업부문들에서도 힘있게 나래치고있다.

강철전선을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용해공들

석탄생산량을 늘이고있는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남덕청년탄광의 탄부들

농업전선의 병기창인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증산의 동음 높이 울리고있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나서는 절실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과학연구사업을 지향시키고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대건설장들에 필요한 세멘트생산을 다그치고있다.

올해 농사차비로 들끓는 사회주의농장벌

점 하나, 선 하나에도 인민의 꿈과 리상을 담기 위해

— 백두산건축연구원 설계연구소 —

백두산건축연구원 설계연구소는 나라의 건축발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관록있는 건축창작연구집단이다.

이곳의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은 지난 기간 릉라곱등어관, 류경원을 비롯한 현대적인 건축물들과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전변된 삼지연시, 인민사랑의 기념비인 송화거리 살림집들의 건축형성안과 설계작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건설의 선행공정을 맡은 이들은 설계도면의 선 하나, 점 하나에도 사회주의문명, 인민의 리상과 꿈을 그대로 담기 위해 온갖 사색과 열정을 기울이였다.

이들은 건축물들의 질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기술설계방안을 내놓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집체적협의를 거듭하고 첨단수준의 설계응용프로그람과 체계도 연구개발하며 건축설계방법을 과학화하기 위한 두뇌전, 기술전을 전개하였다.

이들의 피타는 탐구와 노력은 조국땅 방방곡곡에 일떠선 자랑스러운 창조물들에 그대로 비껴있다.

지금 이곳 설계집단은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주체성, 민족성, 독창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고심어린 창작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고있다.

사진 리철영, 글 윤금철

최첨단돌파전에서 만족이란 없다

—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 —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

나라의 과학기술을 혁신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탐구전, 창조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111호제작소의 과학자들

국가과학원 111호제작소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을 세계선진수준으로 발전시키고 그 응용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공헌하였다.

먹이분사의 집중성과 조종정확성이 보장된 무인먹이공급기와 농작물의 영양진단과 병해충예보, 생육진단, 수확고진단을 과학화할수 있는 포전기상관측기를 비롯한 가치있고 실용성이 있는 설비들은 설계로부터 제작, 도입에 이르기까지 제작소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낸 창조물들이다.

제작소의 과학자들은 매 장치부분품들의 집적회로설계와 새로운 지원체계구축, 설비조립 등 최고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모든 공정들을 실패를 거듭하며 완성하였다.

적대세력들의 고립압살책동이 날로 심화되는 극난한 악조건에서도 첨단과학의 요새를 기어이 점령하고야말겠다는 야심만만한 배짱과 신념이 이러한 성과를 안아올수 있었다.

지금 이곳 제작소의 과학자들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과학연구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합쳐가고있다.

사진 최광혁, 글 리성준

문명발전을 선도해가는 재능있는 명도안가들

— 조선산업미술창작사 —

조선산업미술창작사에서 다양한 주제의 새롭고 특색있는 산업미술도안들을 내놓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지난해 성황리에 진행된 《녀성옷전시회－2022》 마크도안과 학생들의 새 교복도안, 대성산아이스크림공장제품상표도안, 새형의 객차도안들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산업미술도안들은 20대, 30대의 젊은 창작가들이 창작한것들이다.

새세대 창작가들은 창작사 일군들의 지도방조밑에 소묘와 채색과 같은 미술실기훈련을 많이 하여 창작적기량을 높이는 한편 합평회를 자주 진행하여 집체적지혜와 열정을 합쳐갔다.

그리고 들끓는 현실에서 전형적인 세부자료들을 탐구하고 세계적인 산업미술발전추세를 연구하여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도안들을 창작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였다.

결과 이들이 창작한 상표도안, 광고도안, 간판도안, 의상도안을 비롯한 많은 새 산업미술도안들은 국가산업미술전시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을 받아안은 이곳 창작가들은 불같은 열정을 안고 제품의 실용성과 미적가치를 보장하고 경제적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명도안들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해 분발분투하고있다.

사진 리철영, 글 장윤정

이곳 창작가들은 지난해에도 송화거리와 경루동지구의 봉사망들에 대한 간판도안, 광고도안들 그리고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지향과 현대적미감이 반영되고 실용적측면도 유기적으로 잘 결합된 의상 및 방직미술도안, 경공업제품도안, 상표도안 등 수많은 상업미술도안들을 특색있게 완성하였다.

조선산업미술창작사에서 창작한
산업미술도안들의 일부

희열과 랑만이 넘치는 문화정서생활기지

— 평양보링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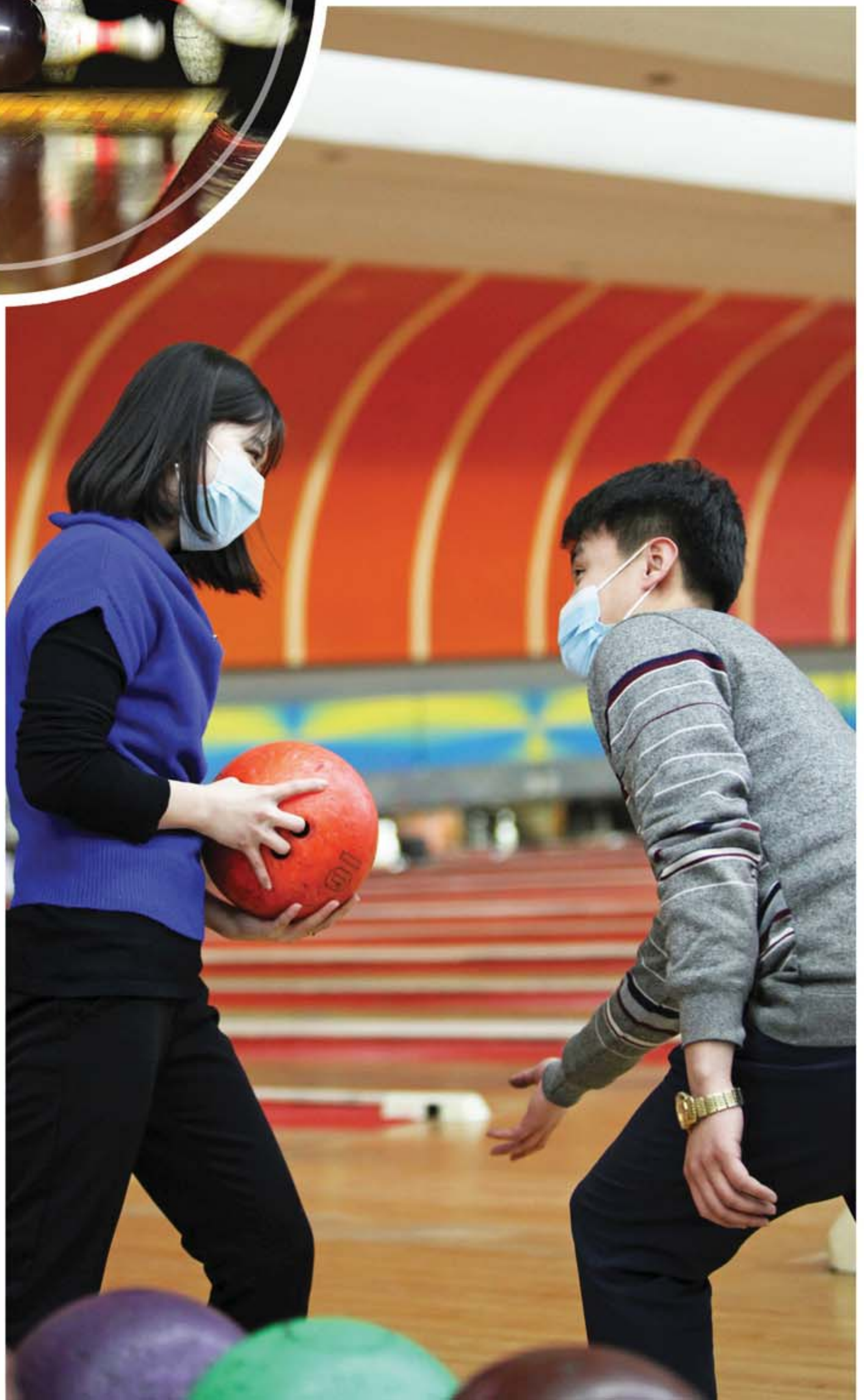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자리잡은 평양보링관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흥성인다.

오늘은 일요일, 기자가 이곳을 찾으니 보링경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채롭게 안겨왔다.

그들중에는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일한다는 로동자와 농업연구원의 연구사,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학생도 있고 세련된 동작을 선보이는 애호가들과 보링의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였다는 신혼부부의 모습도 눈에 띄운다.

직업도 나이도 성별도 각이한 사람들이지만 하나와 같이 희열과 랑만에 넘친 활기찬 그 모습들을 사진기렌즈에 담아갔다.

40개의 보링주로와 보링기계, 점수현시화면들이 갖추어져 국제경기도 할수 있는 이곳에는 률동영화관, 탁구장, 전자오락장을 비롯한 체육유희오락장들도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문예봉선생을 만나주시였다. 주체76(1987)년 4월

공화국의 품에서 영생하는 삶

문예봉선생

— 전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배우 —

사람들에게 지울수 없는 인상을 남긴 우리 나라 영화예술인들속에는 문예봉선생도 있다.

1917년 1월 함흥에서 태여나 제사공장의 녀공으로, 남의 집 아이보개로 떠돌다가 서울의 어느한 연극단에 들어갔던 그는 라운규의 도움으로 16살에 영화배우가 되였다.

그는 그때부터 《임자없는 나루배》, 《춘향전》, 《장화홍련전》, 《나그네》 등 여러편의 영화들에 출연하여 《은막의 녀왕》으로까지 불리웠으나 식민지예술인의 기구한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해방후 공화국의 품에 안긴 그는 진정한 민족문화를 건설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영화창조사업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였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예술영화 《내 고향》의 녀주인공역을 진실하게 형상한 그는 이후 《빨찌산처녀》, 《성장의 길에서》, 《광주는 부른다》 등 수십편의 영화들에서 참신하고 소박한 역형상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나이 80에 이르기까지 영화들에 출연하여 명배우로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온 그의 인생길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세심한 지도가 어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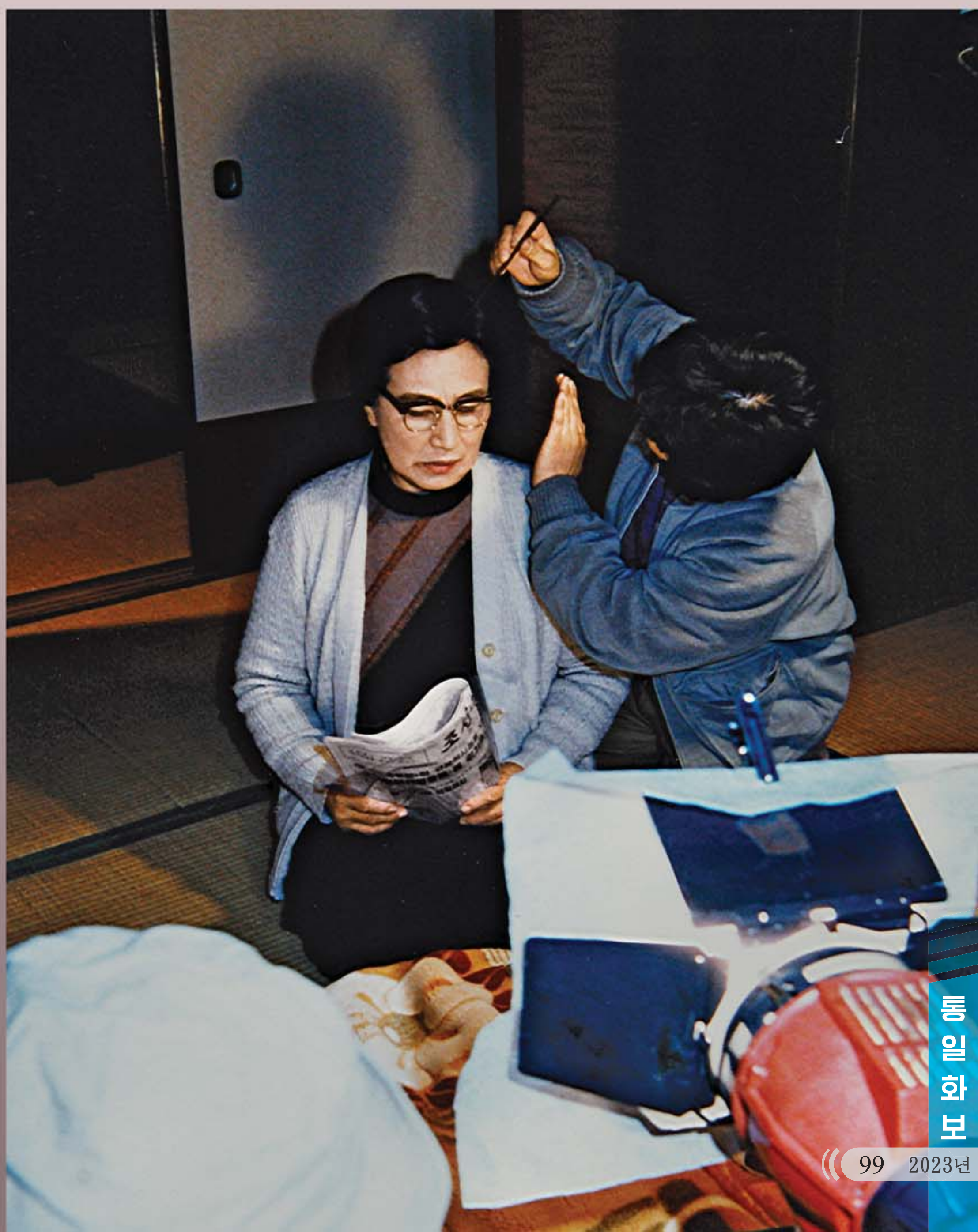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여러 차례 그를 만나시여 연기를 잘한다고 치하해주시였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친히 그의 연기형상방도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고 언제나 젊음에 넘쳐있으라고 사랑의 보약까지 보내주시였다.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영화와 함께 한생을 값있게 살아온 문예봉선생이 세상을 떠난지 수십년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도 만사람이 그를 잊지 못해하고있다.

글 윤금철

조선영화

문예봉선생이 출연한 조선예술영화들중의 일부



⇨ 영화창조의 나날에

배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문예봉선생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문예봉선생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표창을 비롯한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닌 문예봉선생은 1952년에 공훈배우칭호를, 1982년에 인민배우칭호를 수여받았다.

공화국의 품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는 문예봉선생의 후손들

소아심장외과분야의 권위있는 실력가

— 옥류아동병원 심장혈관외과 과장 리철진 —

선천성심장기형을 비롯한 난치성심장질환으로 고통받던 많은 어린이들을 완치시킨 리철진선생은 소아심장외과분야의 권위자이다.

그는 1998년에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의학대학병원 의사를 거쳐 오늘은 옥류아동병원의 과장으로 사업하고있다.

지난 시기 의학이 발전된 나라들에서만 가능하던 선천성심장기형환자에 대한 수술과 치료방법들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모의훈련을 거듭하던 끝에 그는 우리 식의 수술방법들을 개척하고 완성하였다.

그는 수술용소모품들에 대한 연구에도 정열을 바쳐 수입에 의존하던 봉합침과 배액관, 흡입관 등 각종 의료용소모품들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하였다.

몇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그는 6건의 새로운 수술방법들을 개발하고 10여건의 발명, 수십건의 창의고안들을 의료봉사사업에 도입하여 2021년 최우수발명가상을 수여받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시고 제일로 사랑하시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책임졌다는 높은 자각과 책임감이 있었기에 그는 피타는 연구의 길을 쉬임없이 걸어올수 있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 자라나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위해 오늘도 치료사업과 과학연구의 날과 날을 이어가고있다.

사진 최광혁, 글 리성준

리철진과장이 받은 2021년 최우수발명가상증서와 발명증서들의 일부

새로운 수술방법개발	6건
발명	10여건
창의고안	수십건

리철진과장이 창안한 심장수술용소모품들의 일부

남조선민심의 분노

《이러다 전쟁난다!》, 《한미련합 전쟁연습 당장 중단하라!》

새해벽두부터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북침야욕에 환장이 되여 지상과 해상, 공중 어디라 할것없이 모든 령역에서 각종 련합훈련들을 미친듯이 감행하고있으며 지어 《참수작전》과 《대량살상무기제거》훈련과 같은 특수훈련까지 발광적으로 벌려놓고있다.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궤변으로 북침전쟁연습을 합리화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설쳐대는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의 군사적망동질은 지금 한계를 초월하고있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들려는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의 침략전쟁연습광기에 격노한 남조선의 각계층속에서는 《미국과 윤석열의 위험한 전쟁질주를 막아야 한다.》, 《미국의 행동대장 윤석열로 인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있다.》,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는 한미련합전쟁연습 당장 중단하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거세게 울려나오고있다.

글 본사기자

한미연합 공중훈련 중단하라
ARMS DOWN KOREA PEACE
평화를 원한다! 군사행동을 멈춰라!
NO WAR KOREA PEACE
무력충돌 절대안돼
한반도 위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전쟁을 부르는 군사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NO WAR KOREA PEACE
전쟁을 부르는 군사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하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쟁연습 중단! 미국 반대!

뜸치료

뜸료법은 뜸쑥을 태울 때 생기는 열로 혈을 자극하여 병을 예방치료하는 고려의학적치료법이다.

우리 선조들이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뜸료법은 경맥을 통하게 하고 찬 기운을 없애며 기혈을 조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뜸료법에는 뜸봉을 해당 혈의 피부우에 직접 놓고 뜨는 직접뜸과 혈부위의 피부우에 약물을 놓거나 간격을 두고 뜨는 간접뜸이 있다.

간접뜸에는 소금뜸, 마늘뜸, 생강뜸, 부자뜸, 뜸대뜸, 뜸통뜸 등이 있다.

뜸을 뜨면 위장관의 윤동운동과 소화액분비를 항진시키며 내분비계통에 영향을 주어 진통진정작용 등 여러가지 치료효과를 볼수 있다.

사진 최광혁, 글 장윤정

우리 민족이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뜸료법중에서

뜸대뜸은 상박관절염, 관절염치료에 널리 쓴다.

마늘뜸은 기관지염치료에 좋으며 항염, 항균, 진통작용이 강하다.

침뜸(온침)은 침과 뜸의 효과를 동시에 리용하여 혈액순환계통, 신경통, 척추아픔 등 여러가지 치료에 적용한다.

소금뜸은 소화불량증치료와 설사멎이작용, 위장기능강화에 효과적이다.

우리 나라의 고려의학고전에는 고려의학의 성과들, 민간에서 얻은 치료경험들과 함께 천수백가지나 되는 침뜸치료법이 서술되여있다.

면적외선뜸돌뜸은 소화기계통, 비뇨기계통치료에 많이 리용된다.

력사유적

대성산성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동에 있는 대성산성은 3～5세기의 고구려의 산성이다.

고구려산성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성산성은 고구려의 왕궁이였던 안학궁성을 보위하는 방위성이였다.

둘레가 7 076m, 길이는 9 284m인 이 성은 을지봉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부터 소문봉, 을지봉, 장수봉, 북장대, 국사봉, 주작봉의 6개 봉우리들을 련결하였다.

북쪽은 험준한 산줄기들이 첩첩히 잇닿아있고 동쪽과 서쪽은 급한 경사를 이루었다. 남쪽을 겹성으로 쌓은 대성산성은 적들이 쳐들어오기에는 매우 힘들고 방어하기에는 위력한 성새였다.

대성산성의 성돌은 자연석을 일정한 크기의 4각추모양으로 다듬어 벽돌쌓듯이 서로 어긋물려 일매지게 쌓아 성벽이 튼튼하게 하였다.

성벽이 꺾이는 모서리에는 각루를 설치하고 성벽의 바깥에는 도랑을 파놓았다.

대성산성에는 잉어못, 사슴못, 구룡못, 장수못을 비롯한 170개의 못이 있었다.

대성산성안에서는 고구려기와들과 금동불상과 불경이 들어있던 돌함 등 유적,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였다.

오늘 대성산성은 국보적유적으로 잘 보존관리되고있으며 근로자들의 즐거운 문화휴식터로 되고있다.

글 장윤정

대성산성 남문

장수못정각

대성산성의 성벽

냔곳: 통일화보사　　주소: 평양시 중구역 련화2동
사서함: 조선 평양 국제우편국 사서함 150

ㄱ-1572ㄷ

루계 414

ISSN2305 8544